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9, 예레미야 46-49, 열방에 대항하는 예언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29, 예레미야 46-49장, 열방에 대항하는 신탁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두 세션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세 번째 주요 부분인 46장부터 51장까지를 살펴보고 열방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다가올 포로생활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거나 길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실 멸망을 담고 있습니다. 26장부터 45장에는 유다가 예언의 말씀을 거부한 이야기와 기사가 나와 있으며, 유다 국가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박해를 거부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직면하고 경험한 반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데려오실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관한 약속 부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해 예언하는 신탁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임무에서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역할은 확실히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의 주된 초점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인 칠십인역에 반영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MT에 반영된 히브리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초기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70인역 성경에서 열방에 대한 이러한 예언은 25장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예레미야서의 중간에 있습니다.

마소라 전통에서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이 신탁의 마지막 배치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것이 예레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것의 기본 연대기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25장의 첫 번째 부분의 끝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취하게 하는 힘으로 인해 비틀거리게 될 것이며, 유다는 그 나라들 가운데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순서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다에 대해 심판을 집행하신 후에 최종 심판과 최후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신탁이 있는 마소라 전통은 또한 그것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책의 결론은 50장과 51장에 있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며, 부록은 바벨론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 맡게 될 역할에 대해 여러 면에서 꽤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관해 말하는 내용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전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동쪽으로부터 반역자이거나 바벨론에 대한 전쟁 노력과 저항력을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관해 말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왜 사실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임명하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50장과 51장의 신탁에서 바벨론이

묘사되는 방식 중 하나는 바벨론이 온 땅의 망치라는 생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기름 부으신 부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이렇게 전복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상대로 성전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단순히 친바벨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배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그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유다의 주요 문제는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책의 마지막 부분인 46-51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초점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초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다른 예언서에 비추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열방에 대한 이러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요 선지자들에는 선지자가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신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런 종류의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25장부터 32장 중간 부분에 에스겔이 나오는 확장 부분

바로 앞에 나오는 열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는 히브리어 성경 46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소선지서에는 아모스서의 첫 두 장에서 열방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아다야서, 즉 예언서 전체는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예레미야서 49장에서 예레미야가 에돔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와 여러 면에서 매우 짧고 간략한 메시지인 예언서입니다. 문학적 문제와 공통 출처 및 사물에 대한 문제가 이 토론에서 나옵니다. 외국에 대한 예언인 또 다른 소선지서는 나훔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과 앗수르 제국이 행한 모든 잔인함과 폭력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단지 예레미야서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의 예언 전통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레미야의 사명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열방에 대한 이러한 예언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행을 하고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빌론에서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며 여기에 내가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을 향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외국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지자들이 보통 이런 곳에 가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이후에 빨리 마을을 떠나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한 가지 예외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설교하라는 사명을 받은 요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이에 대한 요나의 저항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외국에 대해 설교할 때에도 보통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요나의 반대는 단순히 그가 가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들이 화를 내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만일 자기가 거기 가서 니스웨 사람들에게 전파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심판을 면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앗수르가 이스라엘과 요나 백성의 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과 6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작성할 때 그의 서기관 바룩의 형제로 보이는 사라야라는 사람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라야에게 위임하고, 사라야가 기원전 593년에 바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시드기야와 동행했을 때, 그는 그에게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두루마리를 읽은 다음 그 주위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에 던지라고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읽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설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방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목적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열국과 상호 작용하는 모든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관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선지자 시대.

괜찮은.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외국 나라들을 향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주요 주제와 이유입니다. 첫째,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지 자신의 고향 영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주의적인 신이 아닙니다. 다른 고대 근동 민족의 신들 중 일부가 보는 방식은 종종 그들이 특정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민족주의적인 신이 아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그의 유산이지만 실제로는 그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46장 18절과 19절에서 애굽에게 말씀하실 것을 반영하는 열국에 대한 이 신탁에서 여러 구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애굽 주민이여, 사로잡힐 짐을 준비하라. 멤피스는 황무지가 되고 주민이 없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앞 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왕이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집트가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선언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제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통제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시요, 그의 뜻을 행하시고 그의 주권을 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유다에 있던 애굽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난민들이 애굽으로 도망하여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그들을 바벨론의 영역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가능성 밖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예언에서 언급된 가장 먼 땅은 엘람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엘람은 사실상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국가에 대항하는 다른 예언에 초점을 맞추거나 강조하는 것을 실제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엘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람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5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3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보좌를 엘람에 두고 그들의 왕과 신하들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까지 미치나요? 현재 국가들이 가장 멀리 도달할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보좌를 가장 먼 곳에 두리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46장 9절과 10절에서 애굽에게 다시 말들이여, 오라, 오 병거들아 전진하라고 말씀하신다. 용사들 곧 방패를 잡는 구스와 붓 사람들과 활을 잘 다루는 룯 사람들은 나가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의 날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전쟁을 치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다와 싸우도록 군대를 명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다른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 중 하나이자 기억해야 할 가장 격려적인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정치적 상황이든지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물처럼 인도하여 그분의 뜻과 명령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예레미야 시대의 일들이 아무리 혼란스러웠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위에도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관참은.

열방에 대한 이 예언이 하는 두 번째 생각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적들을 다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속박과 포로 생활과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적 패배.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 나라들은 결국 상황이 역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블레셋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애굽 사람과 모압 사람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신탁을 들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에서 다시 애굽을 향한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고 평안할 것이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또 이르시되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단지 외국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억압했던 바벨론과 다른 많은 나라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실 것이고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구출하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46~51장에는 이 신탁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외국 국가들에 대한 이러한 신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들 다른 국가들과의 동맹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유다 국가의 마지막 날에 시드기야가 이집트와의 동맹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바벨론의 위기에서 구출되기를 바랐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논쟁을 벌이며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바벨론 군대를 쳐부수고 부상자만 남게 된다 해도 그들이 돌아와서 당신을 쳐부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앗수르의 위기 동안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조언자들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격려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자. 연합을 만들자.

아마도 우리가 올바른 배치나 올바른 정치적 연합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약속이나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맹은 그들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돔에게 주어진 메시지의 예레미야 49장에서 이 개념에 대한 흥미로운 반영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었고 열국 가운데에 사신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레미야 27장 3절로 돌아가면, 우리는 기원전 594-593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대해 읽게 됩니다. 그 회의에는 다시 여러 나라의 사절들이 시드기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에돔은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낸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사신을 보낸 이유는 히스기야와 만나 군사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저항합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이 자신의 사신들을 나라들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모여서 그를 대적하고 일어나 싸우라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고 인류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리라. 당신이 불러일으킨 공포가 당신과 당신 마음의 자존심을 속였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언덕의 높이를 붙잡는 너희여. 좋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항할 방법을 계획하면서 예루살렘에 사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강합니다.

아, 에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들이 패할 것이라고 알리는 사절을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46장의 첫 장에서 애굽을 향한 메시지를 다루는 이유는 역시 애굽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자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랐던 주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글썄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유다를 상대로 성전을 벌이게 하십니다.

46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 사자나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에도 성전을 행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유다 지도자들과 왕들에게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 동맹이 효과가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특히 열국에 대한 신탁의 최종 주요 목적은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이스라엘은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소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으신 계약의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의 나라들을 비난하실 때, 그들은 모세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율법의 10계명이나 613계명을 뽑아서 열방 사람들에게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지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노아 언약을 위반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 언약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세우신 언약이었습니다. 무서운 점이 자 우리가 목상하게 될 것 중 하나는 성경이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시대에 세상에 있던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이 노아 언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으며,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언약이라면, 오늘날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련에서 정하신 조건에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5장, 6장의 노아 언약에서 인류에게 부여된 일차적인 책임은 유혈 사태와 폭력을 금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새 제도를 세우사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도 그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나라들에게 그들의 폭력과 유혈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5절에서 그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흔들리고 휘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한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한 율법,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계약은 아마도 노아 시대에 확립된 마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26장 19절에서 이사야는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실 때 땅이 그 피흘린 일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노아 언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정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항상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심판의 선고만 있을 때도 있지만 열국에 대한 신탁의 근본적인 신학은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하에서 확립된 그들의 책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심판의 포효를 지르시며 사자처럼 시온 성에서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시기 전 처음 여섯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에 내리실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저지른 폭력과 잔학행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전체 원칙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손가락을 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확대하고 확대하는 것에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열방에 대한 심판의 신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저지른 잔학 행위와 폭력에 대해 종종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뼈를 불태운 모압 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도, 여호와와의 진노도,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아 언약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리실 심판을 말하면서 바벨론에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이여, 사형 선고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피를 흘리며 세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선지자 나훔 3장 1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아시리아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들은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보아도 엄청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훔 3장의 다음 두 구절은 나훔으로 와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그들에게도 행할 군대를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예언적 정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방에 대한 신탁의 근본적인 신학은 이 나라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이유는 다릅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기본 신학입니다. 이 신탁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심판 신탁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국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6장,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47장,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웃이요 사사 때부터 원수였더라 48장, 모압 사람들.

49장 1절부터 6절, 암몬 자손. 49장 7절부터 22절, 에돔 사람들. 49장 23절부터 27절, 아람 사람들의 수도 다메섹.

이스라엘이 역사 전반에 걸쳐 갈등이나 파트너십을 맺은 사람. 49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솔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달과 하솔의 아랍 부족들입니다.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엘람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나 바벨론에서 동쪽으로 수백 마일 떨어진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신탁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목록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그것이 초능력과 제국이었던 누군가로 시작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46장 애굽은 과거의 제국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을 크게 압제했던 나라이자 예레미야 시대의 정치 현장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에는 바빌론 50장과 51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초강대국에 대한 언급으로 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을 바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연설이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만큼 큰 나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만큼 작은 나라도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에스겔서를 펴서 거기에 언급된 나라들을 보면, 나열된 나라들 곧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 와 시돈과 애굽이니라.

따라서 몇 가지 차이점만 제외하면 국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심판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하게 됩니까?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 선포된 심판입니다. 이것은 주로 역사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환난이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날을 묘사하는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심판들이다. 사실 이러한 심판의 대부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보세요. 46장 1절 애굽 사방 열국 곧 유브라데 강 가 갈그미스에 있는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 왕이 패하고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이 심판은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애굽을 격파한 전투와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역의 지배 세력으로 자리잡게 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에서 예레미야는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전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46장 13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치러 올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니라 46장 26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내가 그들을 애굽 사람에게 넘겨 주리니 내가 그들을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하였느니라 .

그러면 애굽에 대한 예언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서 이 심판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큰 환난 날에 내가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기리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심판입니다.

관찰은. 49장 30절에는 아랍 집단인 게달 지파에 대한 심판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관련하여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언제 일어날 예정입니까? 이번 판결은 언제 집행되나요? 30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락을 세우고 너를 칠 계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계달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또 아마겟돈 전쟁인가, 아니면 재림인가? 아니요, 예레미야 시대에 행해진 심판은 그 역사적 상황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언을 대중적으로 다루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현대의 사건이나 재림 전 마지막 날에 세상에 일어날 일을 탐구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을 자주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종종 우리는 특정 참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약속되었나요?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나요? 이것은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까? 이 구절들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마지막 때에 집행되는 심판에 확실히 다시 반영될 패턴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을 찾아 현재의 정치적 사건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잘못된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대중적인 예언 치료법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책을 팔거나 인기를 끌거나 청중을 확보할 수 있는 비디오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유효한 해석학이 아닙니다.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과 10장에 미국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음을 보여 주려는 The Harbinger라는 매우 인기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9장과 10장의 문맥을 보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800년 전. 20세기나 21세기 미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내려지고 집행되고 있는 심판들입니다. 이제 46장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46장 10절 그 날은 애굽이

멸망할 그 날이요 그 날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날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니라 그의 원수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날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그런 맥락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에게 나오는 여호와와 그의 날은 가깝거나 먼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이 곧 여호와와 그의 날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날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날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에서 그날은 유다 백성을 위한 여호와와 그의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쳤을 때, 예레미야는 그 날이 애굽을 위한 여호와와 그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때로 선지자들에서는 주님의 날이 가까웠고, 주님의 날이 멀었다고 말하는 것이 언제인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주님의 날이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종말론적인 구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립하는 것이 단지 중요한 해석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 저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 예언에 대한 새로운 비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섹션에서 우리가 배운 또 다른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특정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는 단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할 뿐이고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역사를 거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로 이 나라들의 오만함과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왕으로 인정받는 세상, 존귀와 영광을 받고 통치와 존귀를 받는 세상으로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 실행하고 있는 것은 인류가 그 왕권에 반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를 돌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들은 그것을 대체하고 자신의 영광을 확립하려고 노력하는 자신만의 반대 왕국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심지어 자신의 신을 설계하고 고안하는 지점까지 그를 이끈다. 그것은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자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들의 신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토대이자 근거인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애굽 사람의 교만을 이같이 나타내시리라 그들이 나일 강 같이 솟아오르고 물이 넘쳐 흐르는 강 같으니라

이집트는 나일 강처럼, 물이 넘쳐 흐르는 강처럼 솟아오른다. 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고 그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정말 효과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스스로를 매년 제방에 범람하는 나일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인은 내 군대와 함께 내 힘과 능력으로 온 땅을 흘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압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군대의 한계와 힘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장 7절에서 모압 족속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나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대 나라들을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부과하는 책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압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함락을 당할 것이요 네 하나님 그모스도 그의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라

그렇다면 부와 보물에 대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한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국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교만과 그 세력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모압과 같이 우리가 주목하지도 않을 작은 나라까지 심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그 강대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 자신의 신을 고안하고 자신의 자원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48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압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를 취하게 하여 모압에게 임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여 그 토한 것 중에 뒹굴고 그도 갇히게 되었느니라 비웃음.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자부심과 성취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내리실 파괴적인 심판을 당신이 경험할 때 당신이 토한 것 중에 뒹굴게 하심으로 당신을 모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들에 관해 반복해서 말하게 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에게 심판을 가져올 또 다른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압 사람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4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까? 당신이 그에 대해 말한 것은 무엇이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조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에게 아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나요? 이스라엘 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이 어찌하여 갓을 쫓아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을 물려줄 후손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신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 갓 지파에 속한 땅을 빼앗았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그 도시들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 이전의 앗수르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전쟁의 함성을 들리게 할 날이 이르리라.

암몬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심판을 받는 민족 중 하나가 에돔 족속입니다. 역시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경쟁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에돔이 심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서를 읽으면 선지자 오바댜가 언급하는 것 중 하나는 에돔 사람들이 실제로 에돔을 침략하면서 바벨론 사람들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땅. 그들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바벨론 군대와 함께 유다와 싸운 용병들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에돔은 바벨론의 침략을 기회로 삼아 유다의 영토를 빼앗았으며,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노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서 나오는 지속적인 신학적 원리나 지속적인 메시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오래 전에 여러 나라와 나라에서 살았던 일단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지도책을 꺼내면 우리 중 일부는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지속적인 신학적 원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인간 교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개인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척 산다면 사실상 당신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은 당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나 성취, 역사, 유산, 군사적 성취로 인해 교만하게 높아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들과 개인들 모두에게 집행하실 최종 심판은 모든 형태의 인간 교만을 종식시키는 심판일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에 묘사된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서 특정 나라들을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2장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전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는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고 사람의 교만한 것이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교만한 자와 높은 자와 모든 교만한 자와 낮아지는 자를 칠날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끝에는 콧구멍에 호흡이 있는 사람에 관하여는 멈추라 하였으니 그 사람은 무슨 까닭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이 메시지는, 이 신탁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오래 전에 살았던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동일한 교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적극적으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모든 형태의 교만을 없애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와, 아마도 이 구절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오래 전에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의와 공의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흔드는 나라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빌리 그레함의 인용문으로 돌아가서,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 사람들과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여, 우리도 같은 종류의 교만으로 우러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중적인 예언 치료에서 종종 현대 사건에 대한 언급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에 관해 나에게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은 미국이 성경 예언에 언급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구절이라도 찾을 수 있나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내용이 있나요? 9-11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는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재림 날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질문에 대답할 때, 아니요, 저는 그런 질문들 중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이 선지자들을 가르친다고요? 당신은 예언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의 글을 살펴보고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성경의 예언,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이미지에서도 미국에 대한 언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간단한 해석학적 규칙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래 전에 살았던 이 나라들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하나님이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집행할 심판과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리실 심판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적 예언을 할 때 자주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이스라엘에 관해 말한 약속이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에 상황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옛 경제에서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셨던 방식으로, 심지어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국가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미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나를 부르며 그 죄를 자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구절의 주요 적용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땅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예언에서 미국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특정한 구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정한 약속이나 메시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은 국가에 대항하는 신탁을 찾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집트, 바빌론, 앗시리아와 같은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반역을 드러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우리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줄리 우즈(Julie Woods)라는 작가는 몇 년 전에 서양의 앗시리아라고 불리는 소선지자들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훔의 심판 연설이 서구 세계의 우리와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앗시리아와 미국 사이에 방정식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쁘고 우리 군대니 뭉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나라들에 심판을 내리신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 민족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실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미래에 큰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 전반에 걸쳐 나라들을 심판하신 이유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훔서에 가서 미국이 앗수르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교만하고 반항적인 제국들을 심판하셨던 많은 이유 때문에 미래에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한다면 미국이 시리아와 같거나 미국이 바빌론과 같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Peter Leithart가 그의 책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아마도 Babel과 Beast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도시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짐승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심판받은 나라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모형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민족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웃이자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나 마지막 날에 관해 이야기하는 예언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적들의 심판은 종종 그 작은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사야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후에 왕국이 임하리라.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실 것입니다(에스겔 35장).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옵니다. 이사야 63장에 여호와께서는 에돔 땅 보스라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용사시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대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과녁을 그려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에돔이 장차 심판을 받을 나라들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 개인과 궁극적으로 국가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믿었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는 신의 정의와 신의 보복이 전쟁의 일부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채찍으로 뽑힌 피 한 방울 한 방울도 칼로 뽑은 피 한 방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티븐 킬러(Stephen Keeler)라는 역사학자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심판(God's Judgment)'에서 이 문제를 훌륭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 사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세속주의나 하나님이 밀어내신 기술, 우리의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 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탁을 통해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어긴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땅을 훔쳤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0년마다 수백만 명의 태아를 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노아 언약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혈액 측정기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국가와 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 충분하고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예, 우리는 역사에서 일어난 심판을 다루는 섹션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에도 임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없는 척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이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고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는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더 잘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29, 예레미야 46-49장, 열국에 대항하는 신탁입니다.